

최

공무원의 신분인 권덕희 씨의 물사랑 글,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한 글이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글을 읽고 가슴으로 받아 들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서 제외되겠죠!

권덕희

고맙습니다. 새로운 물을 찾기 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을 아껴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물은 자연에서 얻는 것이지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물을 제공해 주니까요. 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ㄴㅇㄹ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 앞으로는, 피죤물로 텔레비전 닦을게요.

ㅎㅎ<

참 좋은 생각이네요,,후음~

신호원

우리 엄마는 피죤 대신에 식초를 쓰시는데요.

물 절약 칼럼

작은 방울의 조화로움이 모여 큰 강을...

글 _ 권덕희(공무원)

가끔씩 보이는 햇빛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물에 대한 소중함 보다는 물난리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 염려되는 계절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물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에는 물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절이다. 이럴 때 일수록 물의 귀한 모습만을 보아야 한다. 인체가 수많은 근육과 뼈의 단단한 결합으로 구성되었듯이, 하나의 작은 물방울 결정체가 수없이 모여 한 모금의 물이 되고 다시 그것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하나의 작은 분자들이 모여 일정한 물체를 형성하듯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물의 결정체들이 모여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구성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물질이지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가장 작은 것(물방울)에서 큰 것을 이루려는 '시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만들어 지기까지에는 대자연의 신비한 조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젓줄인 강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하여 싹틔줄 같은 새강을 만든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작은 마음 하나가 사회를 복되게 하듯이 한 방울의 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의 자연과 강은 더욱 더 맑은 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물의 소중함과 두려움을 알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사랑 아이디어

피죤물.. 그냥 버리세요?

글 _ 배규인(주부)

빨래하다 말고 전 세탁기 배수호스 밑에 큰 고무그릇을 놓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지요. 피죤물이 정전기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빨래 다 널구, 걸레질 하시구, 그걸 피죤물에 빨아서 텔레비 닦으면 탁월하디구... 향기나니 전화기나 장식장 그런 곳을 닦아두 좋을 듯 하네요. 다 아시는 건가요?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의 지혜 많이 올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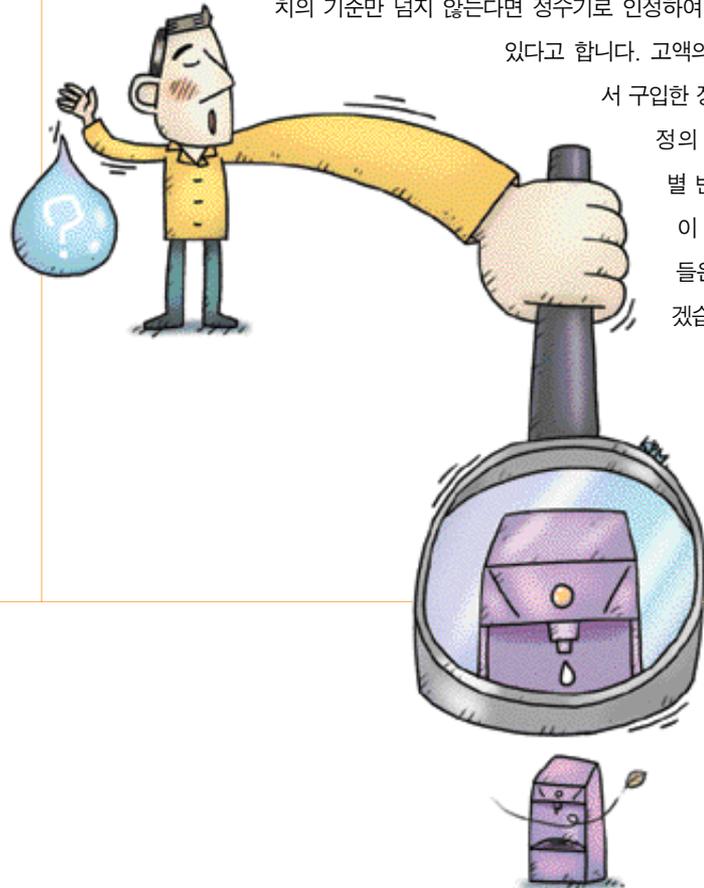
정수기의 물, 믿고 마실 수 있을까요?

글 _ 진행범(직장인)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우리 나라 정수기 물의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마하면서도 정수기는 어느 정도 신뢰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는 정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요즘처럼 각기 가정, 학교, 관공서, 식당 기타 사람들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정수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화되고 이제는 우리생활에 필수품처럼 인식되어있는 정수기. 과연 정수기에서 걸러져 나오는 물들은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것처럼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나라 정수기 업체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수기들의 정수능력을 테스트해 본 결과 한 업체의 정수기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것은 필터를 제때에 교체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기 청소를 2~3일에 한 번씩 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한다고 하여도 기계 내외부에 살고있는 세균들의 번식능력마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정수기 내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걸러지는 정수능력이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과학시간에 사용하던 깔때기 한 장에서 한 번 걸러지는 정수능력과 별반 다를 게 없더군요~~. 우리 나라 현행 규칙으로는 정수능력이 떨어져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잔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치의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정수기로 인정하여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입한 정수기에서 일반 가정의 수도물과 비교해



별 반 다를 게 없는 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마시겠습니까?



배병철

우리 집은 정수기를 사용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정수기 물을 뽑아서 또다시 끓여먹어요. 제가 너무 세균에 대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김정란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정수기의 물도 믿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그 안에서 정수를 해서 나온 물입니다. 그걸 다시 끓여서 드시다니 그건 정수기 회사에다 필터교환을 신청하세요. 아님 정수기 버리시던지 비싼 돈 주고 사느니 그 편이 낫겠죠.

이기훈

맞아요... 그냥 수도물 받아 끓여서 마시는 게 좋죠... 저희 집도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내부에 개미가 들끓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봐도 더러워요...

송찬모

정수기도 정수기 나름입니다. 마셔서 몸이 좋아지면 좋은 정수기이고 변비, 혈압, 뇌졸중을 유발하는 정수기는 나쁜 정수기입니다. 좋은 물을 마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제품이든 물 맛을 보고 선택할 것 같군요.

※본 글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2003 세계 물의 해 공식 사이트,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물 사랑 일기

water



수돗물 사랑

2003년 8월 21일 eunah님(교직자)



오늘은 대구에서 열리는 U대회를 보기 위해 전 가족이 차로 여행하는 날이다. 지난 밤에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를 했고 여행 중에 꼭 있어야 할 음료수를 준비하기 위해 빈 페트병 12개에 수돗물을 담고 냉동을 하여 아침에 Ice Box에 넣어 출발을 했다. 아이들이 마실 물을 요구할 때마다 이 수돗물을 주면서 맛이 어떠냐고 했더니 큰 아이가 물맛이 좋다고 하였고 그 외 아이들도 좋아했다.

나는 물맛을 유지하기(4℃~8℃) 위해 무척 신경은 썼으나 보람도 많았다. 매일 수돗물 사용을 꺼려했던 큰 아이가 수돗물을 사랑하게 됐으니 참으로 반갑다. 오늘 여행은 그 어느 여행보다 즐겁기만 하다.



수도꼭지를 잠궜더니 민망하게.. -_-;

2003년 8월 27일 dairyou님(중학생)



학교에서 미술시간이 끝나고 난 뒤 수도가에 손을 씻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다 수도꼭지를 그냥 틀어놓고 손을 씻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수도꼭지를 다 잠궜더니 마치 구두쇠를 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친한 아이들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까짓 물 틀어놓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서 잠글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내 나름대로는 물을 아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인식이 물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먼저 실행해서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게 해야겠다.



I LOVE WATER

2003년 8월 31일 gobaksa님(대학생)

물을 사랑하자!! “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아낄 수도 있고 소중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제가 내세우는 구호입니다.. ㅋㅋ.. 너무 간단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면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 사랑 일기 써 분건 별로 없지만 일기라고 생각하니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자기 일기를 남한테 보이는 거 같아서. ㅋㅋ 그래도 이 일기를 읽고 뭔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길 바랄 뿐~

공사장의 '물'

2003년 9월 25일 suyha님(주부)

오랜만에 큰 길 건너에 있는 대형 할인 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니 건너편 아파트를 지나고 또 새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나가야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던 비도 잠시, 어디로 여행이라도 떠났는지... 세상은 활기차고 하늘도 드높고 온통 삶이 여유롭게 느껴진다.

길 건너 아파트단지를 지나, 공사현장 옆으로 지나자니 길가엔 온통 '물' 골이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물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웬지, 오늘 나는 나도 모르게 도로에 무방비로 흘러서 어디로 사라지고 마는 '물' 들을 보니 큰 걱정이 앞선다.

세상의 모든 '물' 들이 나의 '물' 도 아닌데 말이다. 아마도 내가 너무 '물' 욕심쟁이일까? 아니면 '물 사랑' 에 너무 빠진 것일까? '저렇게 많은 물이면 내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몇 날 몇 일이나 사용할 수가 있을텐데...' 이제 도로를 내달리는 '물' 이 가없게까지 느껴진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보람없이 흘러가 버리는 듯 보이는 '물' 들이.



물도 그릇에 담으면 음식

2003년 9월 29일 ysy02246님(초등학생)

사극을 보다 보니 물에 대한 상식이 나온다. 옛날 우물물이 흠비람으로 인해 흠탕물이 되자 물을 떠놓아 가라앉혀서 뜨겁게 끓여서 썼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소독이 되니까.

또 하나 물을 마실 때에는 몸의 어디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마신다 하니 대단한 지혜이다. 아무렇게나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물 마시기가 있을 줄이야 제일 감동받은 건 물도 그릇에 담기면 하나의 음식이 된다는 말. 명언이야 명언.

